

# Market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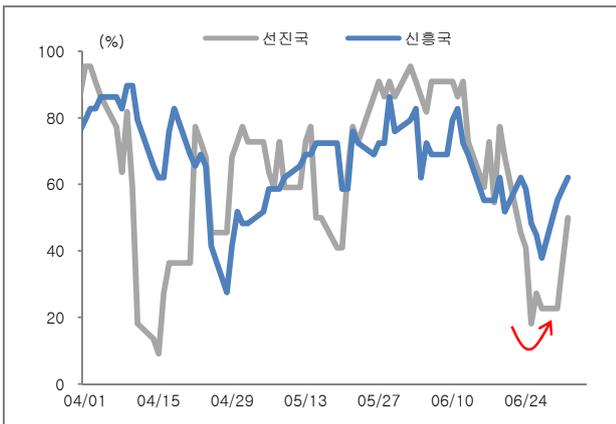
## 중요 분기점에 진입한 주식시장

### 여전히 우호적인 대외여건

2014. 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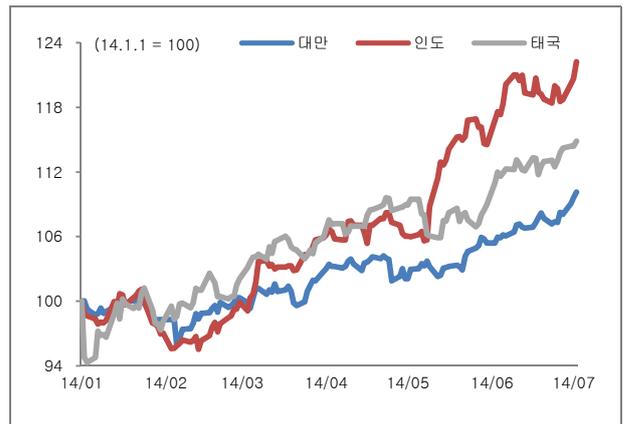
- 미국 고용지표(3일, 이하 현지시각)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발표(8일)를 앞두고 KOSPI가 2,010선으로 소폭 하락했다. 2/4분기 어닝시즌의 포문을 여는 삼성전자의 실적발표에 따라 지수의 방향성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으며, 연준의 경기부양적 통화정책과 펀더멘털 개선을 기반으로 사상최고치 경신행진을 이어왔던 미국 증시에 있어서도 고용지표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6월초 이후의 주가 조정을 통해 삼성전자의 실적부진에 대한 눈높이 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여전히 우호적인 증시 주변여건들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우선 미국 고용보고서의 선행지표인 6월 ADP 민간부문 취업자수(28만 1천개)가 지난 2012년 1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며 고용시장의 개선세가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다. 열린 연준의장 역시 IMF 연설에서 금융안정

20 일선을 웃도는 주식시장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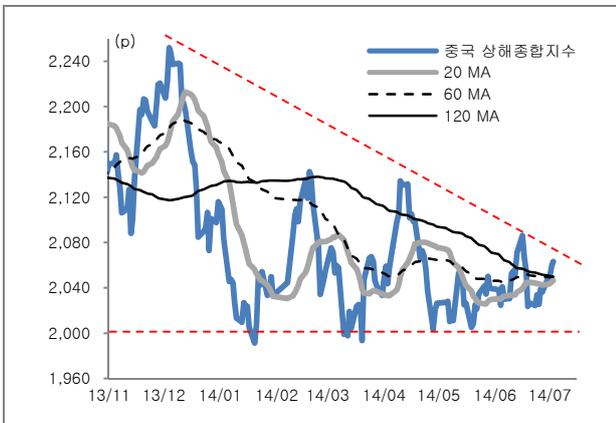
자료: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대만, 인도, 태국 증시 상대강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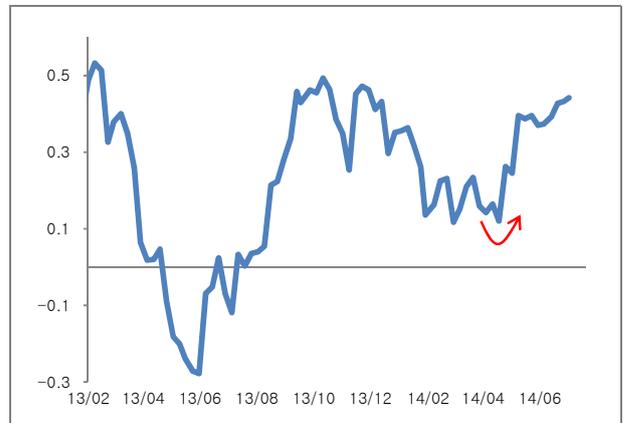
자료: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중국 상해종합지수 추이



자료: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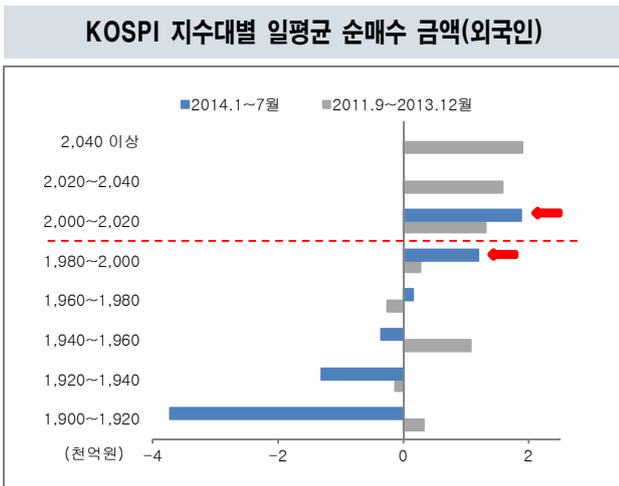
중국과 한국 증시의 상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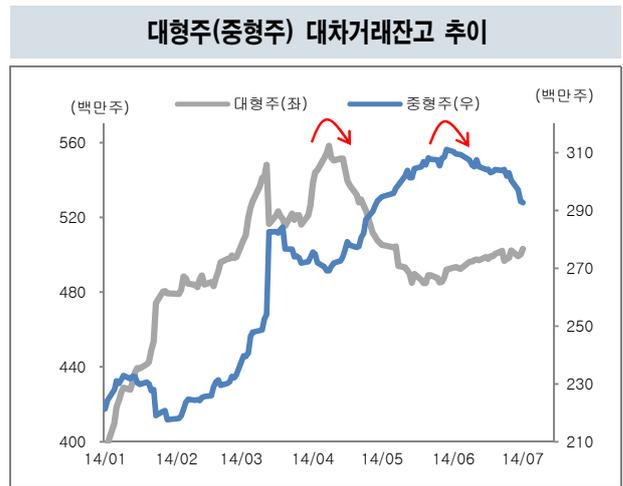
주 : 중국과 한국 증시의 상관계수는 20주 기준  
자료: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연준의 통화정책에 당장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즉, 그동안 당사 Market View를 통해 꾸준히 언급해왔듯이 우호적인 선진국 통화정책과 글로벌 리스크 완화무드 혹은 위험자산(신흥국 증시 등)으로 글로벌 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주부터 단기 추세선인 20일선을 회복하는 글로벌 증시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글로벌 증시의 바로미터인 미국 증시가 사상최고치 경신행진을 이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신흥국 중에서도 올해 최고치를 넘어서는 상승세를 나타내는 국가(인도, 태국, 대만, 남아프리카, 멕시코, 등)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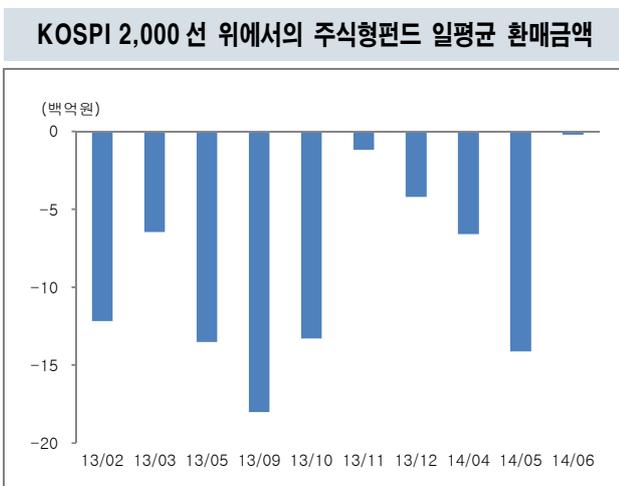
-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상대국인 중국의 경우 정부의 미니부양책 발표가 제조업 지표의 개선세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해종합지수의 반등세가 재차 강화될 조짐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장기 삼각형 패턴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상해종합지수가 최근 주요 이평선(5MA, 20MA, 60MA, 120MA)들의 밀집구간을 뛰어넘는 상승세를 나타내며 추세변화 모색시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관심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간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주식시장도 상해종합지수와 KOSPI 간의 상관계수(20주 기준)가 지난 4월을 고비로 가파르게 상승반전하며 중국 증시와의 민감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러한 맥락에서도 최근 중국 경제(증시)에서 관찰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들이 국내 증시는 물론 중국의 성장세와 맞물린 종목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높여주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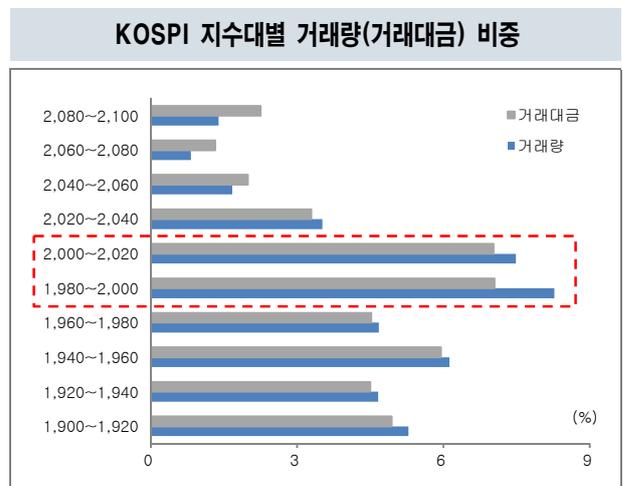
자료: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자료: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주 : 국내 주식형펀드 ETF 제외  
자료: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주 : 지수대별 거래량(거래대금)은 2009년 이후 데이터 기준  
자료: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 개선되고 있는 시장センチ먼트

---

- 한편, 지수대별 주요 투자자들의 매매패턴에서도 시장センチ먼트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KOSPI 지수대별로 주요 투자자들의 순매수 금액을 살펴본 결과 2,000선 위에서 올해 외국인의 일평균 순매수 금액이 지난 2013년 이전보다 43% 증가했으며, 국내 기관 중 연기금과 보험과 같은 벨류투자자들의 일평균 순매수 금액도 이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KOSPI시장 내 대형주의 대차거래잔고가 지난 4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중소형주로 그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 투신권의 매수기반이 되는 국내 주식형펀드도 지난 5월 일평균 1,400억원에 달하던 KOSPI 2,000선 위에서의 환매금액이 6월에는 일평균 21억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국인의 일평균 매수금액이 늘어나는 반면, 환매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KOSPI 지수대별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1,980~2,020선을 상향돌파할 경우 매물대가 크게 약화되며 지수의 상승탄력이 강화될 수 있는 구간으로 다가서고 있다는 점에서도 경기민감주(낙폭과다주) 중심의 비중확대 전략을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